

# 주간 중동 건설동향

2024. 4. 19.



한-UAE 인프라협력센터

## 주간 중동 건설동향

### - 목 차 -

#### 1. 주간 건설시장 및 경제 동향

- 이스라엘-이란 긴장, 전면전으로 확대 가능성 10 % - BMI
- UAE, 75년 만에 최다 강우량 기록
- UAE, 화력 발전이 전력 믹스를 계속 지배할 전망
- UAE, EWEC,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 7.6GW 달성 목표
- UAE, 마스다르 시티,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
- UAE, RAK, 수십억 달러 규모 배터리 셀 제조 시설 유치 추진

#### 2. 주간 MEA 건설 프로젝트 동향 (발주 및 수주 정보 등)

- UAE, Ethiad WE, 라스 알 카이마 갈릴라 1 IWP 용량 검토 중
- UAE, 아부다비, 1.5GW 카즈나 태양광 IPP 입찰서 발행
- UAE, 두바이 애터니타스 타워 프로젝트 주계약자 선정
- UAE, 식스 센스 레지던즈 두바이 마리나 착공
- UAE, EWEC, 아즈반 태양광 발전 계약 체결
- 오만, 무스카트 메트로 타당성 조사 완료
- 모로코, 고속철도 프로젝트 입찰서 발행

#### 3.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

- 국제유가 : Brent, WTI, 두바이유
- 환율 : USD, JPY, Euro

#### 4. 공지사항

- 2024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안내
- 2024년 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 안내

## 1. 주간 건설시장 및 경제 동향

### □ 이스라엘-이란 긴장, 전면전으로 확대 가능성 10 % - BMI

- Fitch Solutions의 자회사인 BMI의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역내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전면전이 벌어질 확률은 10%로 나타남

- BMI의 MENA 국가 리스크 책임자 라모나 무바라크는 ‘분석, 이스라엘-이란 긴장: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?’라는 제목의 보고서\*에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보복을 감행해 전면전으로 이어지고, 이 지역 국가들이 확실히 개입해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이 10%라고 밝힘

\* 이 보고서는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이후 나온 것임

- 또한, 이 보고서는 ▲지난 주말 이란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‘적당한 보복’을 가할 경우 이란이 이 공격을 제한적이라고 인식하고 더 작은 규모의 보복에 나설 확률이 50% ▲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강경한 것으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보복할 확률이 15% ▲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분쟁에 집중\*할 확률이 25%라고 밝힘

\* 이 경우 4월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 이전보다 지정학적 위험이 약간 더 높아져 2024년 하반기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

- BMI의 MENA 국가 리스크 수석 애널리스트인 사메르 탈후크 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일부 제거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

- 그는 “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있고, 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”라며 “이 경우 걸프협력회의(GCC)가 일부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석유 공급에 더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”고 밝힘

- 탈후크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BMI의 핵심 견해는 아니라면서, 사우디와 UAE가 경제 혁신 계획과 지역 전반의 성장에 지정학적 긴장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역내 '안정'을 원할 것이라고 밝힘

< 출처 : Zawya (2024. 4. 19.) >

## □ UAE, 75년 만에 최다 강수량 기록

- 지난 4월 16일 UAE 일부 지역에서 24시간 내 250mm(약 10인치)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등 7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동국 미디어 오피스가 4월 17일 성명에서 밝힘
- 1949년 동국에서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고 강도였던 이번 강우로 도로 침수, 건물 파손, 항공편 취소 등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
- 두바이 공항의 기상 관측에 따르면 16일 12시간 동안 내린 100mm(약 4인치)의 비는 두바이의 연평균 강수량과 비슷한 수준임
- 기후 변화로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, 오만에서도 이번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로 최소 18명이 사망했다고 오만 국가재난관리위원회가 밝혔고, 이란 남부와 파키스탄 일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
- UAE 국립기상센터의 한 관계자는 현지 신문 더 내셔널에 이번 비가 구름 씨 뿌리기(cloud seeding) 때문이 아니라고 밝힘
- 다른 페르시아만 지역과 마찬가지로 두바이의 기후는 덥고 건조하여 비가 내리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도시의 인프라가 기상이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

< 출처 : CNN (2024. 4. 17.) >

## □ UAE, 화력 발전이 전력 믹스를 계속 지배할 전망

- UAE는 육상 탄화수소 매장량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2030년까지 가스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 중
  - 현재 UAE는 발전소와 담수화 플랜트용 가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2023년 기준 화력 발전이 전체 발전 믹스의 약 77.7%를 차지함
- GlobalData는 대규모 가스 및 석유 매장량으로 인해 2023~35년 동안 화력 발전이 UAE의 발전 믹스를 계속 지배할 것으로 전망
  - 동사의 최근 보고서인 “UAE 전력 시장 규모, 동향, 규정, 경쟁 환경 및 전망, 2024-2035년”에 따르면 2023년 UAE의 화력발전 설비 용량 점유율은 약 80.4%이며, 가스 기반 화력발전 용량이 80.2%의 점유율로 발전 믹스를 지배 중
  - 새로운 탄화수소 매장량 발견으로 UAE는 탄화수소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새로운 생산 기술 개발을 모색할 계획이며, 현재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장소를 선정하면서 탄화수소 생산을 위한 비전통적 방법을 모색 중
  - 누적 화력발전 용량은 2023년 41.2GW에서 2035년 46.1GW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,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(CAGR)은 0.9%로 증가할 전망
  - 화력 발전원의 연간 발전량은 2023년 135.5TWh에서 2035년 155.9TWh로 증가하여 1.2%의 CAGR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- 대부분의 용량 증가는 가스 기반 화력 발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, 가스 터빈 제조업체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누릴 전망

< 출처 : Zawya (2024. 4. 16.) >

## □ UAE, EWEC,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 7.6GW 달성 목표

- 에미레이츠 수전력공사(EWEC)가 2030년까지 7.6GW 용량 달성을 목표로 아부다비에서 태양광 에너지 생산 확대에 주력 중
  - EWEC의 CEO인 오스만 주마 알 알리는 Emirates News Agency(WAM)에 보낸 성명에서 2030년까지 아부다비 전력의 50% 이상이 재생 에너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, EWEC의 네 번째 주요 태양광 에너지 이니셔티브인 1,500MW 용량의 알 카즈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강조
- 알 알리는 청정 및 재생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가스 발전소의 중요성도 강조하며,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통합을 지원하고 에너지 침투 수요 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5.1GW의 추가 가스 발전소 용량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힘
  - 여기에는 2027년까지 공급될 예정인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2.6GW의 개방형 가스 터빈 용량과 2028년까지 공급될 예정인 약 2.5GW의 복합 사이클 가스 터빈 용량이 포함됨
  - EWEC이 2035년까지 아부다비의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스가 중요한 과도기적 연료 역할을 할 전망이며, 동사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코자 새로운 발전단지 지정을 위해 관련 정부 당국과의 논의 중
- 그는 또한 원자력 에너지의 도입으로 가스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며 에너지원의 전환을 강조함
  - 현재 에너지 믹스는 약 2.5~3GW의 태양광과 5.6GW의 원자력 에너지로 구성되어 가스와 청정 및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각각 50% 수준임

< 출처 : Zawya (2024. 4. 18.) >

## □ UAE, 마스다르 시티,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

-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에서 향후 몇 년 내에 AED 3~4억(8억 1,700만~10억 8,900만 달러) 규모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라고 마스다르 시티 CEO인 아흐메드 바굼이 4월 17일 밝힘
- 바굼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지속 가능한 주거지 중 하나인 이 도시에서 현재 신축 건물과 다목적 사무실 블록을 포함해 약 AED 10억(2억 7,200만 달러)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중
- 그는 UAE의 반관영 일간지 알리티하드에 2030년까지 AED 30억~40억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며, 현재 약 1만 5천 명인 마스다르 시티의 인구가 2030년까지 두 배인 3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
- 현재 마스다르 시티에는 3,000채 이상의 주택과 아파트가 있으며, 2023년 중 약 1,200채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

< 출처 : Zawya (2024. 4. 17.) >

## □ UAE, RAK, 수십억 달러 규모 배터리 셀 제조 시설 유치 추진

- 라스 알 카이마(RAK)가 알 함라 산업지역 내에 획기적인 배터리 셀 제조 시설 유치를 준비 중
- 이 프로젝트는 60헥타르에 달하는 최첨단 배터리 셀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, 미국에 본사를 둔 Statevolt가 공개한 32억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2,500개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이 지역의 경제 번영을 촉진할 전망
- 이 시설은 초기에는 반고체 전지 생산에 집중하여 주요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고, 2026년까지 연간 40GWh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

## 할 계획

- 이 공장은 초기에 반고체 배터리 셀에 초점을 맞추다가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하면 전고체 배터리 셀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추진에 기여할 예정

< 출처 : bnc (2024. 4. 15.) >

## 2. 주간 MEA 건설 프로젝트 동향 (발주 및 수주 정보 등)

### □ UAE, Ethihad WE, 라스 알 카이마 갈릴라 1 IWP 용량 검토 중

- 라스 알 카이마에 계획 중인 갈릴라 1 민자 담수화 프로젝트(IWP)의 용량이 30~90 MIGD가 될 전망
- Etihad Water & Electricity(Etihad WE)의 최고 경영자 유수프 알 알리에 따르면 최종 용량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결정될 예정
- Etihad WE는 최근 갈릴라 1 IWP의 기술 컨설팅 서비스 계약 입찰에 적격업체들을 초청하였으며, 입찰서 제출일은 4월 25일 임
- 과거 연방 수전력청(FEWA)이었던 Etihad WE는 최소 3개의 역삼투압 방식 담수화 플랜트를 관리 중
- 갈릴라에 2015년에 가동을 시작한 기존 해수 역삼투압(SWRO) 플랜트가 있으며, Aquatech(미국)가 하루 15 MIGD 용량의 동 플랜트를 시공한 바 있음
- 다른 플랜트는 나카와 자우라에 위치하며, 이 중 150 MIGD 용량의 나카 플랜트는 UAE 북부 지역 최초의 IWP임

- Etihad WE는 최근 몇 년간 송수 및 물 저장 능력 강화를 위해 1억 8천만 갤런 용량의 쿠라이자 water distribution center(WDC)등의 프로젝트에 AED 20억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

< 출처 : Zawya (2024. 4. 16.) >

## □ UAE, 아부다비, 1.5GW 카즈나 태양광 IPP 입찰서 발행

- 국영 에미레이츠 수전력공사(EWEC)가 아부다비의 네 번째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(PV)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계약을 위한 제안요청서(RFP)를 발행하였으며, 2024년 3분기에 입찰서를 접수할 전망
  - PV4라고도 알려진 카즈나 민자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(IPP)는 1,500 MW의 용량을 갖출 계획이며, EWEC은 2027년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는 중
- EWEC은 카즈나 IPP와 관련하여 9개사에 주관사 자격을, 10개 기업에 컨소시엄 멤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
  - 주관사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멤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▲아크와 파워(사우디) ▲EDF Renewables(프랑스) ▲인터내셔널 파워(Engie, 프랑스) ▲제라 컴퍼니(일본) ▲진코 파워(중국) ▲한국전력공사 ▲마루베니 주식회사(일본) ▲스미토모 주식회사(일본) ▲TotalEnergies Renewables(프랑스) 등이 여기에 포함됨
  - ▲Al Jomaih Energy & Water(사우디) ▲Avaada Energy(인도) ▲Buhur for Investment Company(사우디) ▲China Machinery Engineering Corporation ▲China Power Engineering Consulting Group International Engineering Corporation(CPECC) ▲Kalyon Enerji Yatirimlari(튀르키예) ▲한국서부발전 ▲Orascom Construction(이집트) ▲PowerChina International Group ▲SPIC Huanghe Hydropower Development(중국) 등 10개사는 주관사와 함께 컨소시엄 멤버로 입찰에 참여 가능

- EWEC은 2030년까지 전력의 약 50%를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태양광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힘

- 카즈나 태양광 발전소가 완전히 가동되면 누르 아부다비, 알 다프라 태양광 발전소, 알 아즈반 태양광 발전소와 함께 2027년까지 EWEC의 총 설치 태양광 발전 용량을 5.5GW로 늘려 연간 820만 미터톤 이상의 CO2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< 출처 : MEED (2024. 4. 17.) >

#### □ UAE, 두바이 애터니타스 타워 프로젝트 주계약자 선정

- Al Serh Al Kabeer Contracting이 애터니타스 타워 프로젝트의 주계약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짐
- 두바이의 런던 게이트와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인 프랑크 물러의 협업으로 두바이 마리나에 개발 중인 높이 450m, 106층에 달하는 이 주거용 시계탑은 메카 클락 로열 타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주거용 타워가 될 예정
- 상단에 높이 40m, 너비 30m의 시계가 설치될 이 타워는 1~3베드룸 아파트와 빌라 및 복층 맨션 등 다양한 형태의 649세대로 구성될 예정

< 출처 : bnc (2024. 4. 16.) >

#### □ UAE, 식스 센스 레지던스 두바이 마리나 착공

- Select Group(UAE)이 개발 중인 ‘식스 센스 레지던스 두바이 마리나’가 착공됨
- 이 프로젝트는 과거 Trident International Holdings에 의해 ‘펜토미니엄 타워 프로젝트’라는 이름으로 개발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8월 공사가 중단되었으며, 작년 11월 Select Group이

이를 인수함

- 이 타워 공사의 주계약자는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Arabian Construction Company(ACC)로, 동사는 펜토미니엄 타워 프로젝트에도 시공사로 참여한 바 있음
- 122층인 식스 센스 레지던스 두바이 마리나의 높이는 500m가 넘으며 2, 3, 4베드룸 레지던스, 4베드룸 펜트하우스, 4베드룸 복층 스카이 맨션, 5베드룸 3층 스카이 맨션 등 250개 이상의 주거 유닛으로 구성될 예정
- Select Group은 지난 2월 두바이 비즈니스 베이의 The Edge 프로젝트를 건설을 위해 현지 건설사 Engineering Contracting Company와 AED 6억 5,500만(1억7,800만 달러)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, 2023년에는 비즈니스 베이에 페닌슐라 4 건설을 위해 Al Basti & Muktha(UAE)와 계약했고, 팜 주메이라의 식스 센스 레지던스 프로젝트는 이노보(UAE)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두바이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

< 출처 : MEED (2024. 4. 16.) >

#### □ UAE, EWEC, 아즈반 태양광 발전 계약 체결

- 아부다비 국영 전력회사인 에미레이트 수전력공사(EWEC)가 아부다비의 세 번째 유틸리티 규모 민자 태양광 발전(PV) 프로젝트(IPP)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
- EDF Renewables(프랑스)/한국서부발전 팀이 1,500MW 규모의 알 아즈반 태양광 발전 IPP 계약을 수주한 바 있으며, EWEC이 아부다비에서 열린 World Future Energy Summit 마지막 날인 4월 18일에 공식 계약 체결을 발표함
- 아부다비의 이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아부다비 미래 에너지 회사(Masdar)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특수목적법인(SPV)의

지분 60%를 소유할 예정

- EWEC은 2035년까지 최대 17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UAE는 작년 7월에 2030년까지 전국 재생 에너지 용량을 19GW로 3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담은 업데이트된 국가 에너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

< 출처 : MEED (2024. 4. 19.) >

#### □ 오만, 무스카트 메트로 타당성 조사 완료

- 무스카트 메트로 프로젝트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면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함
  -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 사이드 알 마왈리 장관은 이 연구 결과가 곧 각료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며, 이는 이 도시 교통 계획의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힘
  - 25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메트로 노선은 총 연장 55 km에 42개의 여객 역이 배치될 계획
- 무스카트 메트로의 주요 목표는 교통 혼잡 완화, 관광 매력도 향상, Ruwi 및 Muttah 상업 중심지와 서쪽의 Seeb를 연결하는 안정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등이며, 공항까지 지선으로 연장하여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원활하게 통합될 예정
  - 이 메트로 이니셔티브는 인구 증가, 투자 유치, 교통망 개선, 서비스 품질 향상, 인프라 강화, 환경 보존을 목표로 하는 교통통신정보기술부의 Greater Muscat Development Plan에 부합하는 것으로, 무스카트의 도시 내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

< 출처 : bnc (2024. 4. 18.) >

## □ 모로코, 고속철도 프로젝트 입찰서 발행

- 모로코 철도청(ONCF)이 더 많은 도시, 항구, 공항을 기차로 연결하려는 370억 달러 규모 전략의 일환으로 고속철도 건설 계약을 위한 입찰서를 지난달 발행하였으며, 입찰 기한은 6월 23일임
- 이 철도는 라바트-살레, 카사블랑카 등을 가로지르며 동국 북서쪽 해안의 케니트라에서 남쪽의 마라케시까지 375km에 걸쳐 건설될 예정
- 이 계약에는 최대 시속 350km인 철도 노선의 설계 및 건설 외에도 마라케시에 역, 신호 및 통신 시스템, 유지보수 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되며,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 Egis가 프로젝트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각각 36~64km에 이르는 7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
- 이 철도는 탕헤르, 라바트, 카사블랑카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철도인 알-보라크 철도를 확장하는 것으로, 아프리카 최초의 고속철도 시스템인 이 노선은 2018년에 운영을 시작하였음
- 알-보라크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단계에 포함되었으며, 약 21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었음
- 프랑스 개발청(AFD)이 3억 유로를 지원했고, 아부다비 개발 기금이 1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
- 이 노선은 탕헤르와 케니트라를 잇는 183km의 고속철도와 케니트라에서 카사블랑카까지의 기존 노선 업그레이드 구간 137km로 구성
- \* 탕헤르-케니트라 구간의 최고 속도는 320km/h, 업그레이드된 케니트라-카사블랑카 구간의 최고 속도는 220km/h이며, 이 서비스를 통해 모로코 북서부의 항구 도시 탕헤르와 카사블랑카 사이의 이동 시간이 5시간에서 2시간 10분으로 단축되었음

< 출처 : MEED (2024. 4. 18.) >

### 3. 국제유가 및 환율동향

#### < 국제유가 >

구 분		유가	변 동 (전일대비)	비 고
유 가	브렌트유	87.11	-0.18	USD/bbl
	WTI	82.10	-0.05	
	두바이유	88.84(4.17.)	-1.07	



< 출처: OilPrice.com (2024. 4. 18.) >

#### < 환율 >

구 분		환율	비 고
환 율	KRW/USD	1,380.00	최종고시 매매기준율 (KRW)
	KRW/100JPY	892.54	
	KRW/EUR	1,469.01	

< 출처: KEB Hana Bank (2024. 4. 18.) >

## 4. 공지사항

### □ 2024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안내

국토교통부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『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 바랍니다.

- 다 음 -

#### 1. 사업목적

-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

#### 2. 지원내용

- 지원항목 :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,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직접경비
- 지원금액 :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,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
- 지원비율(정부 보조금 비율)
  - 중소기업 : 총 소요비용의 80%
  - 중견기업 : 총 소요비용의 60%
  - 대·공기업 : 총 소요비용의 50%
- ☞ EDCF 연계목적 조사·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,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지원사업은 지원비율 10%P 추가 지원

#### 3. 지원사업

- (수주활동 지원)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, 발주기관 면담,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
- (프로젝트 조사·분석 지원)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, 경제성,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- (EDCF연계 목적 조사·분석 지원)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
- (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)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(제한경쟁입찰 포함)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
- (정책지원)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·분석,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

4. 지원기간 : 신청일 ~ 최대 10개월

5. 신청기간 : 공고일(2.13) 이후 수시 접수 (예산소진 시 접수종료)

#### 6. 신청자격

-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(해당 공종에 한함)
-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공사
- 대기업 · 공기업은 중소 · 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
- 제외사업
  -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,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

#### 7. 신청서류

- 신청서 및 요약서 1부
- 사업계획서 3부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
-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- 가점확인서류
- 기업규모 확인서 1부(중소 · 중견기업 해당)
- 발주처 인사초청 계획서(계획 보유시 제출)
- 외주 또는 현지조사비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(계획 보유시 제출)
  - 외주비 견적서 2건, 현지조사비 견적서 3건(현지업체 2건 및 국내업체 1건)
  - \* 제출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(HWP) 및 스캔본(PDF)으로 전자파일 별도 제출
- 발주처의 제안 · 타당성검토 지원요청 공문 또는 협력 MOU 등(계획 보유시 제출)

8. 신청서 접수 및 문의 :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
- 이메일 : gimp@icak.or.kr
- 전 화 : 02-3406-1141, 1103
- 주 소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 
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
9. 참고사항

-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등 참고자료  
다운로드 가능

- <https://www.icak.or.kr/board/noticeView?bbsId=12&pageIndex=1&limit=10&searchInputOpt=&sr=500546>

□ 2024년 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 안내

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와 파견비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『해외  
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 
신청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사업목적

- 해외건설 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  
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  
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

2. 신청요건

- 「해외건설촉진법」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  
소·중견기업
- 지난해 또는 올해 신규 채용한 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(예정 포  
함)한 기업
- ※ 단, 청년(OJT기간을 시작하는 시점 만 34세 이하)의 경우 채용시  
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, 해외 현장 근무경력이 3년 이하인  
인력에 한함
- ※ 비청년의 경우 타산업(타공종)에서 이직하거나, 해외현장 근무경력

이 없는 인력에 한함

-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

### 3. 우선선정기업(심의위원회 평가 시 가점 부여)

구분	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	국가 유공자 자녀	취업 취약 계층	청년	특성화고 졸업자	정규직 채용	마이스터고 졸업자	우수 해외건설 사업자
가점	1점	1점	1점	2점	2점	2점	3점	3점

### 4. 지원내용

- 파견비 : 인당 최대 200만원(왕복항공료, 보험료, 비자발급비)
- 훈련비 : 인당 월별 100만원(기업, 개인 각각 50만원 지급, 청년의 경우 월별 50만원을 기업에 추가 지급)
- 지원기간 : 최대 12개월(청년의 경우 24개월까지 지원)
- 지원인원 : 기업별 최대 20명(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)
- ※ 단, 예산 상황에 따라 청년 우선 선정 가능

### 5. 신청·접수기간 : 2024.4.17.~ (예산소진 시 접수종료)

### 6. 신청방법: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

### 7. 제출서류

-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원본
-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원본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
- 신청인원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원본
- 기타 신청내용 증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

8. 신청서 접수 및 문의 :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
- 이메일 : ojt@icak.or.kr
- 전 화 : 02-3406-1080, 1033
- 주 소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 
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
9. 참고사항

-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등 참고자료  
다운로드 가능

- <https://www.icak.or.kr/board/noticeView?tblId=12&pageIndex=1&limit=10&searchInputOpt=&sr=500683>

한-UAE인프라협력센터  
협력관 / 수자원개발기술사

**백 인 혁**

Flat No. 204, Airline Building, Liwa Street,  
Abu Dhabi, United Arab Emirates  
Tel +971-2-563-3906  
Mob +971-50-675-6215  
E-mail buckeyes@icak.or.kr  
<http://kor.icak.or.kr>



국토교통부  
Ministry of Land,  
Infrastructure and Transport



해외건설협회  
International Contractors  
Association of Korea